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운영체계 실태조사 보고서



2023.08

서던포스트

목 차

제 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5
2. 조사 내용	6
3. 참석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
4. 조사 수행 프로세스	8
5. 연구 방법	8

제 2장. 조사 결과 요약

1. [이용실태] 노인복지관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	10
1) 주거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이동 방법	10
2) 노인복지관까지 이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	11
3) 노인복지관 이용 빈도	12
2. [프로그램 수요]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14
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만족/불만족하는 부분	14
1-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의향	15
1-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취업 도움 여부	16
2) 프로그램 신청·이용 과정 상 어려운 점	17
2) 특정 성별·연령대를 대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18
3.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20
4. 기타 의견	21

제 3장. 집단심층면접(FGI) 분석

1. [이용실태] 노인복지관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	24
1) 주거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이동 방법	24
2) 노인복지관까지 이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	25
3) 노인복지관 이용 빈도	27
2. [프로그램 수요]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29
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만족/불만족하는 부분	29
1-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의향	34
1-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취업 도움 여부	37
2) 프로그램 신청·이용 과정 상 어려운 점	39
2) 특정 성별·연령대를 대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41
3.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45
4. 기타 의견	4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1장. 조사개요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운영체계 실태조사 보고서 -



1. 조사 설계

□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이용자 집단심층면접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음

□ 집단심층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는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정책연구회와 조사수행업체 연구진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함

내 용	
조 사 대 상	인천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 이용자 - 연수구 노인복지관, 청학 노인복지관, 송도 노인복지관
표 본 크 기	총 7개 그룹(34명) - 연수구 노인복지관 : 3개 그룹(5명, 4명, 5명) - 청학 노인복지관 : 2개 그룹(5명, 5명) - 송도 노인복지관 : 2개 그룹(7명, 3명)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
조 사 기 간	2023년 6월 29일 ~ 2023년 7월 12일 (3주) - 연수구 노인복지관 : 7월 4일 - 청학 노인복지관 : 6월 29일 - 송도 노인복지관 : 7월 12일



2. 조사 내용

- 인천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집단심층면접 항목은 크게 1)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2) 노인복지관 이용 프로그램 및 수요, 3)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4) 기타 의견으로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단심층면접 항목은 참석자들에게 모두 질문하는 ‘구조화된 질문’과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질문을 하는 ‘꼬리물기식 질문’으로 구성함

영역	내용
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이동 방법 - 노인복지관까지 이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 사례 - 노인복지관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
노인복지관 이용 프로그램 및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의향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취업 도움 여부 - 프로그램 신청·이용 과정 상의 어려움 - 성별/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운영 및 제반 환경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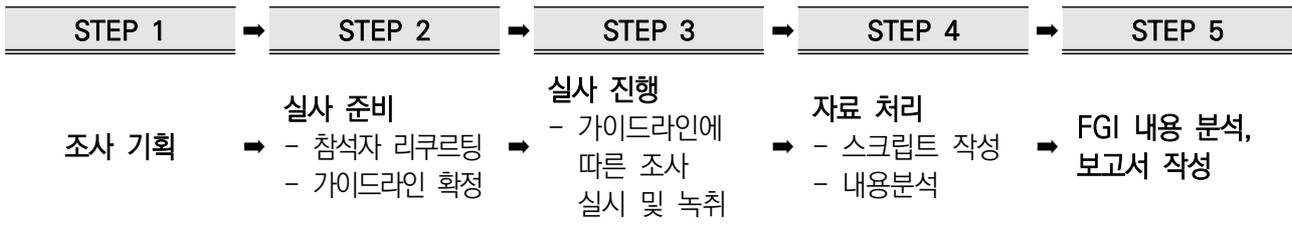
3. 참석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 복지관	그룹 구분	연번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연수구 노인복지관	1	1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3	여	195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4	남	195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2동
		5	남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2	6	여	195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7	여	19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8	여	1958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9	남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3	10	남	1958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1	여	19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12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3동
		13	여	1958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14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청학 노인복지관	4	15	여	19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6	여	195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7	여	1954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18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9	여	195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1동
	5	20	여	195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1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2	여	19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3	남	19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	여	19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송도 노인복지관	6	25	여	196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4동
		26	여	19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27	여	19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28	여	19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5동
		29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30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31	여	196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7	32	여	195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	여	195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3동
		34	여	196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 조사 수행 프로세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진행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총 5단계로 진행되었음



5. 연구 방법

- 사례조사는 질적 연구대상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임. 사례조사는 극히 소수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수의 측면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수행함
- 집단심층면접의 항목은 이용 중인 노인복지관의 이용 실태, 프로그램 수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에 대한 질문과 추가적인 꼬리물기식 질문을 활용하여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함
- 집단심층면접은 동질적인 조사 대상자를 한 장소에 모은 후 모더레이터에 의한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방법으로서, 응답자의 응답 이유, 의견, 가치관 등 응답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더하거나, 면접 대상자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면접은 본 연구의 수행업체 소속 연구원이 진행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면접 시작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 면접 결과의 활용 범위와 목적, 익명성 보장과 참석사례비를 면접 대상자에 전달함. 면접 내용은 응답자의 동의하에 경험 및 의견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면접 내용을 녹음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운영체계 실태조사 보고서 -



1. [이용실태] 노인복지관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

1) 주거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이동 방법

- 집단심층면접조사(FGI)에 참석한 응답자들은 도보, 대중교통, 그리고 자차를 이용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언급되었음
 - 도보로 이동하는 것으로 답변한 응답자들의 평균 소요시간은 20분 내외이며, 자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언급되었음
 - 자차, 대중교통 대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주로 건강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었지만, 일부 소수 의견으로는 복지관 내 주차시설 부족,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한다는 소수 의견들도 언급되었음
 - 좌담회 참석자 중 연수구노인복지관(연수동)과 청학노인복지관(청학동) 이용자들은 노인복지관이 소재하고 있는 동 지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 송도노인복지관(송도3동) 이용자들은 모두 송도국제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도보 20~50분, 자차 15분 내외, 대중교통 30분 내외 정도 소요됨
	그룹2 - 도보 5~45분, 대중교통 25분 내외 소요됨
	그룹3 - 도보 10분~20분, 대중교통 40분 내외 소요됨
청학	그룹1 - 도보 15분 내, 자차 10분 내외, 대중교통 40분 정도 소요됨
	그룹2 - 도보 5~40분 내외, 자차 15분 내외, 대중교통 10~20분 정도 소요됨
송도	그룹1 - 도보 15~40분 내외, 자차 20분 내외 소요됨
	그룹2 - 도보 5분~30분 내외, 자차 10분 내외 소요됨



종합

- 응답자들은 거주지에서 걸리는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도보, 대중교통, 자차를 이용하여 노인복지관에 방문함



2) 노인복지관까지 이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

- 연수구노인복지관과 청학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보로 이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되었음
 - 반면, 송도복지관 이용자들의 다수는 자차를 활용해서 노인복지관을 방문, 이용한다는 의견들이 언급되어, 이용자들이 노인복지관으로 이동과정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자차를 이용하여 노인복지관에 방문할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관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수구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가천대학교, 적십자병원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인근 아파트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언급되었음
 - 청학노인복지관의 경우,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주차장 내 주차 가능한 차량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도보/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이용한다는 의견도 언급되었음
 - 연수구 노인복지관 및 청학노인복지관의 경우, 주차 과정에서 문 콕, 차량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인근 지역주민 간 갈등 사례도 언급되었음
 - 반면 송도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내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하주차장이 만차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송도3동 복지센터 등의 노인복지관의 주차장을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언급되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버스 이용 시 버스정류장과 복지관 사이 거리가 멀어, 버스 하차 이후에도 도보 5분 이상 소요됨 -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정류장이 복지관과 멀어 이용이 불편함 - 셔틀버스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함 - 복지관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하기 어려움
	그룹2	- 복지관 주변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었고(가천대, 인근 도로 등) 주차공간이 부족함
	그룹3	-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이동 거리에 비해 기다리는 시간이 김
청학	그룹1	- 복지관 이용자 중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주차공간이 협소함 - 차량 운전자가 노인이다 보니 접촉사고가 많아 주변 동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함 - 지역 여건상 주차공간을 확보할 부지가 없어 보임
	그룹2	- 주차장이 없어 차를 눈치껏 길에 세워야 하고, 활동 도중 차 빼달라는 전화가 오면 차를 빼주러 나가야 함



송도	그룹1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나 버스 노선이 한 번에 이어지지 않고 배차간격이 길어 자차를 이용하거나 복지관 방문 횟수를 줄이게 됨 -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함
	그룹2	- (연급 없음)



종합

- 차량을 이용하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함
- (연수구)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3) 노인복지관 이용 빈도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1회~5일을 이용하는 응답자까지 다양하게 조사됨
 - 노인복지관내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수(3~4개)가 제한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수강 이외 각종 여가활동, 노인 일자리 사업등에 참여하기 위해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내용들이 언급되었음
 -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작은 이용자(주 1~2회)들은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수강 위주로 방문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내 체류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연수구노인복지관과 청학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복지관 내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하여 식당 이용, 복지관 이용자간 다양한 여가 및 친목활동을 같이 하면서 주 3회 이상 이용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복지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내외를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송도복지관 이용자들은 주 2회~3회 이용한다고 답변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 복지관 내 프로그램 이수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는 적은 것으로 집계됨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주 1회 이용부터 주 3회 이용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외에 탁구장 이용, 노노케어 사업 참여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함
	그룹2	- 주 2회 이용부터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 - 복지관 프로그램 외에 점심 식사, 운동 연습, 친목 활동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함
	그룹3	- 주 1회 이용, 주 3~4회 이용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외에 점심 식사, 식당 봉사, 운동, 노인 일자리 참여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함
청학	그룹1	- 주 1회 이용부터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 - 복지관 프로그램에 수요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보조 강사로 활동하기도 함



	그룹2	- 주 1회 이용부터 주 2~3회,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
송도	그룹1	- 주 1회 이용부터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
	그룹2	- 주 1회 이용부터 주 4회 이용



종합

- 주 1회부터 5회까지 다양하게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 외에 보조강사 활동, 스포츠 시설 이용, 각종 사업 참여를 위해 복지관을 이용함

2. [프로그램 수요]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만족/불만족하는 부분

- 노인복지관을 이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불만족, 개선점으로 언급된 사항은 ‘수준별 수업’, ‘수강신청 과정에서 인원 제한 규정’에 대한 사례들이 다수 언급되었음.
 - 특히 음악, 체육 활동과 관련된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복지관에서는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초급’과 ‘중급’ 과정으로 2개 수준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고 있지만,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언급됨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타 복지관에 비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 만족함 - 프로그램이 상반기/하반기에 각 3개월씩으로 짧고 학기 사이 방학이 3개월로 길어 수업의 장기적인 진행이 어려움 - 같은 프로그램이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매 학기 반복됨
	그룹2	-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재미와 보람을 얻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얻어 만족함 - 강사진과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 하고, 복지관과 가천대학교가 협업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특히 만족함 - 복지사들의 친절함 과 복지관 직원들이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해주려 노력하는 것에 만족함 - 코로나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짧아져 불만족함
	그룹3	- 수업의 난이도 구분이 없어 (초급 수업이 반복 혹은 초급 수업이 없음)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강하기 어려움 -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고 강사진의 실력에 만족함



청학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강사진의 수준, 복지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강사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움 - 강의 환경이 쾌적함 - 한국 무용 강좌의 경우 연습만 하고 공연할 기회가 없어 아쉬움 - 프로그램이 난이도에 따라 분반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기초 과정을 수강한 이용자가 다음 학기에 또 다시 기초 과정을 수강하게 됨. 프로그램 경험자와 미경험자가 섞여 진행이 어려움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진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은퇴 후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싶던 활동과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함 - 단, 원하는 프로그램이 오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오전에 일을 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것이 아쉬움
송도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것에 비해 공간을 사용하려는 수업, 동아리는 많아 아쉬움 -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만족함 - 방학이 2달가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긴 것이 아쉬움 - 프로그램이 난이도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초반 수강 이후 수강할 과정이 없어 불만족스러움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함



종합

-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진의 수준, 복지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프로그램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한번 수강한 프로그램을 반복 수강해야 하거나, 초급자가 이미 수강중인 이용자와 어울려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워 만족도가 떨어짐

1-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의향

-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 도입·활용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일부 이용자들은 고령(70대 이상)인 점을 주요 이유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취업에 대한 수요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취업 의향이 있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주로 60대로 은퇴 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 계층에 한해서 취업 의향을 드러내는 등 소수 의견으로 파악됨
 -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여가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 구성되었고,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 혹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데이터 라벨링 등 일자리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함 - 애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수구노인복지관 이용 을 시작함
	그룹2 - 하루 2~3시간 돌봄 업무, 경로당 강의 등 이라면 참여할 의향이 있음
	그룹3 - 일자리가 필요한 연령대는 60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노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일자리 프로그램 수요가 높아 보임 - 노인으로서 일자리 보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식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음 - 체력이 부족하고, 매일 일정 시간을 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움
청학	그룹1 - 파크골프 지도자 과정을 이수해 강사로 활동 하고 싶음 - 노인 세대가 다른 노인이나 어린이 등에게 연극, 단막극 등 공연을 하는 ' 시니어 모델 ' 활동 을 한다면 공연료도 받고,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의욕도 고취할 수 있을 것임 - 반려식물 키우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식물 케어 등 일자리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음
	그룹2 - 현재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여가생활에 집중 하고 싶음 - 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적더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일 이 있길 바람 - 한국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함
송도	그룹1 - 동화구연, 스토리텔링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가 연계되길 바람 - 복지관 이용자들의 오랜 육아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연계 활동을 하길 바람
	그룹2 - 애초 취업 정보를 찾다가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함



종합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용자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이용자,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용자 등 다양함
- 업무시간이 길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자리의 수요가 높음

1-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취업 도움 여부

- 좌담회 참석자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취업에 크게 도움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언급되었음. 다수의 복지관 이용자들은 취업 목적보다는 여가활동, 교육 등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하여 생각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과 관련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이 열릴 경우,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의견도 다수 언급되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자리 사업이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취업을 위해 일자리 연계 사업 중 ‘아동 한자 지도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현재 아동 청소년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 사실상 일자리로의 연계가 되지 않는 상황임 -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되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음 -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음 . 과거 전래놀이, 구연동화 등 프로그램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았음
	그룹2	-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에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되었음
	그룹3	- 복지관의 일자리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이 도움 됨
청학	그룹1	- 아직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그룹2	- (언급 없음)
송도	그룹1	- (언급 없음)
	그룹2	- 복지관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만 있는 상황임



종합

- 복지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복지관이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복지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연계된 일자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움

2) 프로그램 신청·이용 과정 상 어려운 점

- 노인복지관 내 공간과 예산 문제로 프로그램이 수용 인원이 적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되었음. 이 때문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구비해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어려움 또한 언급되었음
- 프로그램 시간대가 유동적이지 않아 원하는 프로그램 중 한 가지만 택해야 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중인 타 사업과 프로그램 시간대가 겹쳐(주로 오전) 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언급되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움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자리 사업이 일반 프로그램과 시간이 겹쳐 참여하기 어려움 - 특강 신청자가 많아 특강 수강을 원하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데, 상습적으로 특강 신청 후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음. 상습 불참에 대한 제재나 대기자 추가모집을 하면 좋겠음
	그룹2	- 수준별 연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강하기 어려움
	그룹3	- 프로그램 수강 정원이 적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어려움 - 프로그램 시간 상 인당 3가지 프로그램만 수강 가능함.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길 바람
청학	그룹1	- 복지관 장소가 협소해 수용 인원이 적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대기가 많음 - 프로그램이 오전 시간대에 몰려있어 오전에 다른 일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우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음 - 프로그램별로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어(예: 우쿨렐레는 항상 화요일 9시 반) 한 번 시간이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다음 학기, 다음 년도에도 수강하기 어려움. 고정된 시간대를 교대로 바꿔주길 바람
	그룹2	- (언급 없음)
송도	그룹1	- 프로그램 신청 경쟁률이 높고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움
	그룹2	- 프로그램 신청자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어 대기가 많은데, 대기의 경우 수업을 처음부터 들을 수 없음 -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 추천 방식이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수강이 어려움 - 프로그램이 수준별로 나뉘지 않아 평준화된 수준으로만 프로그램이 진행됨



종합

- 프로그램 수요에 비해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적어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움
- 프로그램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거나 타 사업과 겹쳐 이용이 어려움

3) 특정 성별·연령대를 대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 노인복지관의 연령대 구성비는 70대가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고, 60대와 80대는 노인복지관·프로그램 별로 달라진다고 언급됨. 세부적으로 연수구 노인복지관과 청학 노인복지관은 10명 중 6명 이상이 70대인 것으로, 송도 노인복지관은 60대 후반 연령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노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고령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되었음
- 공통적으로 특정 성별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다, 프로그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쌓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되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약 70% , 80대가 약 30% 정도이고 60대는 매우 적음 - 일반적으로 남성 이용자는 전체 프로그램 이용자의 약 5~30% 정도로 적은 편이나, 컴퓨터 등 일부 프로그램에는 남성 이용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음 - 고령 이용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그룹2	-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가장 많고 , 이후 60대, 80대 순임. - 프로그램의 특성, 랜덤 추첨 결과에 따라 60대와 80대 비율은 달라짐 - 프로그램에 따라 성비 차이가 크나 대체로 여성 이용자가 많음 - 60대 남성 이용자를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램보다 복지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그룹3	-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가장 많고 , 프로그램에 따라 60대와 80대 비중이 달라짐 - 프로그램 별 차이가 있으나 남성 이용자보다 여성 이용자가 많음 - 60대 이용자를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이 필요함 - 남성 이용자를 위해서는 학습 프로그램 외에 스포츠 관람 등을 통한 동호회/친목 모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청학	그룹1	-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가장 많고 , 85세 이상 이용자도 꽤 많은 편임 - 스마트폰, 컴퓨터, 강의의 경우 90세가 넘는 이용자도 많은 편임 - 드로잉, 라인댄스, 한국무용 등 강의를 제외하면 스마트폰, 영어, 우쿨렐레, 사교댄스, 파크골프 등은 성비가 반반 정도임
	그룹2	- 복지관 이용자 중 70대가 가장 많고 , 이후 80대, 60대 순임 - 대체적으로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성별의 편차가 있음. 골프, 언어, 드로잉 등은 여성 이용자가 많고 사교댄스는 남성 이용자가 많음 - 남성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60대 후반 남성도 복지관은 70대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복지관 이용을 꺼리기 때문. 또한 60대 남성은 아직 생계활동을 하는 나이이므로 이용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임 - 남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웰빙 댄스, 건강 체조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 - 단순 강의식 프로그램이 아닌 이용자들끼리 동호회를 구성 하고 필요할 때 마다 강사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60대 초반 남성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임
송도	그룹1	- 복지관 이용자 성비는 프로그램 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8대 남성 2 정도 임 - 상담 사업 결과 우울감이 높은 이용자가 송도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상담 사업이 확대 되길 바람
	그룹2	- 복지관 이용자 성비는 여성 비율이 높음. 여성 비율이 높아 남성 이용자들이 쉽게 복지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음 - 복지관 이용자는 60대 후반에서 70대가 가장 많음 - 60대를 대상으로 악기 공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공연을 통해 복지관 인지도를 높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종합

- 복지관 이용자의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60대와 80대의 참여 비율이 달라짐
- 전체적으로 남성 이용자에 비해 여성 이용자가 많으나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남성 이용자 참여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음
- 60대 이용자를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과, 복지관을 꺼리는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모든 연령대 이용자에게 학습 프로그램 외에 이용자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3.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노인복지관의 ‘노인’명칭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도 고령의 이미지를 주어 60대 이상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린다는 의견임.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이용자들도 처음 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노인’의 이미지 때문에 이용을 꺼리거나 부끄러워했다는 경험이 다수 언급되었음
- 노인에 대한 기준을 물었을 때, 70대 이상이라는 응답이 다수 언급되었고, 동시에 다수의 60대 복지관 이용자들은 자신을 노인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화를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많이 언급되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연령층에 맞추어 강사진도 연령대가 높으면 좋을 것임 - ‘노인’ 복지관 이미지를 바꾸어야 함. 초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용을 꺼려함 - 복지관은 노년층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배우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함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대강당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 고령의 어르신들은 장애가 없어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수업을 들어도 휠체어 이용자는 마지막 발표에 참여할 수 없음 - 특수 악기 등 수요가 적은 분야도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주길 바람 - 수급자들은 여러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 수급자가 아닌 보통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혜택을 모름.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함 - 복지관은 고령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함
	그룹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적고,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거나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수강하기 어려움 -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서로 친목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동호회를 운영하길 바람 - 신체가 불편하거나 환경이 어려운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함



청학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복지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60대의 경우 이용이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음 - 같은 노인 세대라도 60대와 70대, 80대는 세대 차이가 있고 부모님 뻘인 경우도 있어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움 - 글쓰기 프로그램 개선을 희망함 - 어르신들에게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큰 힐링일 수 있는데, 복지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음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은 70대 중반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 노인복지관이 곧 경로당과 비슷한 곳이라는 등 복지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노인복지관의 ‘노인’ 명칭이 60대 이용자의 이용을 저해함 -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람 -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바람 - 식당이 협소함 -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이후 담소를 나눌 공간이 없음 - 빔프로젝터 등 복지관에 비품, 설비 지원을 잘 해주길 바람 - 역사탐방, 경락 프로그램 개선을 희망함
송도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관 ‘노인’ 명칭 개선 필요. 복지관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람 - ‘노인’ 명칭, ‘어르신’ 명칭이 어색하고 좋지 않음



종합

- ‘노인’ 복지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60대 비 이용자에게 인식이 좋지 않음
-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기타 의견

-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과 다소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함께 언급되었음
-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이 언급되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정 시 서류 뿐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적인 여건 또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음
-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는 노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활용해 근처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신체가 불편한 노인,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두루 챙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언급되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저렴하고 맛이 좋아 매우 만족함 -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서류 조건만 활용하다 보니 보기 안쓰러운 경우가 많음(예: 허리도 펴지 못하는 노인에게 학교 앞 통학지도 일자리를 배정하는 등의 상황). 서류 조건 외에 신체적인 조건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주어야 함 - 일자리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함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의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의 질을 제고하길 바람 - 동구의 경우 구청이 지역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룹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이 운동하기에 복지관 헬스장 내 기구들은 사용이 애매하고 어르신들의 운동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 그래서 가천대 헬스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
청학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학노인복지관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노인 인구가 많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이용자가 많음. 이런 이용자의 경우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복지관이 저녁시간대와 주말에도 운영한다면 좋겠음 -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노인 위주의 복지관이 아닌 청소년,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길 바람 -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듯함 - 복지관 이용자 인원이 많으니, 많은 인원을 활용해 타인에게 봉사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람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복지관에 카페를 열면 좋을 듯함 - 파크골프 수업을 들어도 인천시 내에 파크골프장이 적어 실제 골프장에서 실습이 어려움
송도	그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이 고기, 생선 위주라 채식을 하는 사람은 식사가 어려움
	그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의 반찬 수, 질적 측면 모두 부족하다고 느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3장. 집단심층면접(FGI) 분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운영체계 실태조사 보고서 -



1. [이용실태] 노인복지관에서 이용 중인 서비스

1) 주거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이동 방법

□ 연수구와 청학 노인복지관의 경우 송도 신도시(송도동)를 비롯한 구도심 지역(옥련동,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거주자들이 다양하게 방문하는 반면, 송도 노인복지관의 경우 응답자의 100%가 송도동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구도심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신도심 소재 복지관의 이용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송도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주거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이동 시 자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고, 이동 시간이 짧은 편임

구분	내용
연수구	<p>도보 20~50분, 자차 15분 내외, 대중교통 30분 내외 정도 소요됨</p> <p>“저는 가끔은 걸어서도 와요. (걸어서) 오면 한 40분, 50분 걸려요. 걸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가 있으니까 차로 와요. 차로 오면 15분, 20분 걸려요. (1, 여성)”</p> <p>“전철로 20분, 30분. (2, 여성)”</p> <p>“걸어서 25분이에요. (3, 여성)”</p> <p>“대중교통 버스로 25분이에요. (4, 남성)”</p> <p>“자차로 15분 정도. (5, 남성)”</p>
	<p>도보 5~45분, 대중교통 25분 내외 소요됨</p> <p>“저는 여기까지 오려면 걸어서는 한 20분 25분 걸어야 하고(후략). (8, 여성)”</p> <p>“저는 걸어서는 45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로는 버스 차에 따라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25분에서 그 정도. (7, 여성)”</p> <p>“저는 여기 앞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걸어서 5분 그 정도 돼요. (6, 여성)”</p> <p>“저도 5분 거리에요. (9, 남성)”</p>
	<p>도보 10분~20분, 대중교통 40분 내외 소요됨</p> <p>“도보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10, 남성 / 11, 여성)”</p> <p>“버스를 타면 10분 안에 다 올 수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 하면 40분 정도. (12, 여성)”</p> <p>“차(버스)만 타면 10분 내로 오는데 기다리는 게 한 20분에서 금방 가면 25분 (중략) 걸어서 오는 거는 한 20분 이상 걸리고 더운 날씨에는 조금 먼 거리죠. (13, 여성)”</p> <p>“도보로 10분에서 15분이에요. (14, 여성)”</p>
청학	<p>도보 15분 내, 자차 10분 내외, 대중교통 40분 정도 소요됨</p> <p>“차로 오면 12분 정도요. 대중교통으로 왔을 때는 58번을 타면 돌아서 와서 40분 걸리고 82번은 걸어 나와서 타면 한 25분이긴 한데 기다리는 시간 생각했을 때 제가 그냥 차로 오죠. (19, 여성)”</p> <p>“차로 오면 10분 내로 오죠. (17, 여성)”</p> <p>“걸어서 15분이에요. (15, 여성)”</p> <p>“저는 (걸어서) 2분 거리에요. (18, 여성)”</p> <p>“걸어오면 15분, 차로 오면 5분 내외요. (16, 여성)”</p>



	그룹2	<p>도보 5~40분 내외, 자차 15분 내외, 대중교통 10~20분 정도 소요됨</p> <p>“자가용은 15분 정도고 버스 타면 20분 정도요. (24, 남성)”</p> <p>“걸으면 한 40분 걸렸고 버스 타면 10분 조금 못 걸렸어요. (21, 여성)”</p> <p>“그냥 걸어 와요. 빨리 오면 30분 정도 못 되게. (25, 여성)”</p> <p>“걸어서 와요. 6분. (23, 여성)”</p> <p>“도보로 15분 정도요. (20, 여성)”</p>
송도	그룹1	<p>도보 15~40분 내외, 자차 20분 내외 소요됨</p> <p>“자차로 25분 걸려요. (28, 여성)”</p> <p>“자차로 15분에서 20분 걸려요. (25, 여성)”</p> <p>“도보로 이용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빠른 걸음이라 그 정도예요. 아니면 40분 정도 걸려요. (30, 여성)”</p> <p>“천천히 걸어와요. 40분 정도 걸려요. (27, 여성)”</p> <p>“도보로 주로 많이 걸고 일이 있거나 비오면 자차로 와요. (29, 여성)”</p> <p>“무조건 자차로 5분에서 10분 걸려요. (31, 여성)”</p>
	그룹2	<p>도보 5분~30분 내외, 자차 10분 내외 소요됨</p> <p>“주로 자차로 오고 차로 올 경우에 넉넉잡고 한 10분. (34, 여성)”</p> <p>“딸 집(송도)에서 올 때는 5분도 안 걸리고요. 저희 집(부천)에서 올 때는 대중교통으로 올 경우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고 차로 오면 40, 50분 걸려요. (중략) 딸집에서 올 때도 있고 손자를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부천에서 올 경우에도 있어요. (33, 여성)”</p> <p>“걸어서 다니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32, 여성)”</p>

2) 노인복지관까지 이동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

- 3개 노인복지관의 집단심층면접 참석자 모두가 자택에서 노인복지관 까지 이동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차 문제를 꼽을 만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특히 청학 노인복지관의 경우 주차 문제로 인해 복지관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마찰이 있기도 함
- 3개 노인복지관이 모두 셔틀버스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셔틀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거나 휴무가 잦아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떨어짐
-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노인복지관 사이 거리가 멀거나, 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원하는 시간에 이용이 불편한 어려움이 있음



구분	내용
연수구	<p>버스 이용 시 버스정류장과 복지관 사이 거리가 멀어, 버스 하차 이후에도 도보 5분 이상 소요됨 “버스를 타면 바로 이거 문남 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요. 그거 내려서 여기까지 5분 걸어서 와야 하고 (1, 여성)”</p> <p>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 정류장이 복지관과 멀어 이용이 불편함 “버스도 배차 시간이 길어서 기다리면 아유 그냥 가자하면서 차로 와버리고. (중략) 놓치면 한 20분은 기다려야 해요. (1, 여성)” “저 건너편에 시내버스도 그것도 시간이 12분에서 15분 이상 걸리고. (4, 남성)”</p> <p>셔틀버스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함 “셔틀 버스 타려면 시간이 또 안 맞고. (중략) 아예 이용할 수가 없어요. (1, 여성)” “셔틀 버스는 배차 간격이 거의 힘들어요. (5, 남성)” “셔틀 버스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면 일자리라든가 다양하게 여기 복지관을 운영 활용하시는 분들은 내 시간하고 자기 집 앞에 오는 셔틀 버스 시간하고는 딱딱 맞을 수가 없어요. (3, 여성)”</p> <p>복지관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하기 어려움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그거에 내가 불만이 있어서 저는 가천대학교 이용할 때는 그런 데로 좋았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제가 5점을 주겠는데 그것 때문에 1점 뺐습니다. (5, 남성)” “주차장 이용 문제가 상당히 보통 기술 안 가지면 못 들어가요. 비 오는 날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는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낫고. (4, 남성)” “전철을 타고 다니고 어쩌다가 아주 덥거나 추우면 차로 오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때문에 아예 안 가져오는 게 훨씬 나아요. (2, 여성)”</p>
연수구	<p>복지관 주변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었고(가천대, 인근 도로 등) 주차공간이 부족함 “예전에는 여기 복지관 주변에 저기 약수터부터 쪽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천대학교에도 주차를 했고. 사실 여기 주차장이 너무 좁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데는 다 못 들어가요. 일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도로도 일체 차를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굉장히 전에부터 막 구청 찾아가고 난리들 해도 안 돼요. 현재 이게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교통이 열악한 데도 있고 하다 보면 차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9, 남성)”</p>
연수구	<p>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이동 거리에 비해 기다리는 시간이 김 “여기 올 때 만약에 노인들을 위해서 개선해 주신다면 버스 노선을 더 주시거나 셔틀버스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버스가 한두 개만 더 있어도 오기가 되게 편할 것 같고요. (12, 여성)”</p>
청학	<p>복지관 이용자 중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주차공간이 협소함 “복지관 이용자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차를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차 많이 운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동네 주민들한테도 민폐고 우리도 너무 불편해요.(16, 여성)”</p> <p>차량 운전자가 노인이다 보니 접촉사고가 많아 주변 동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함 “복지관 주차장에 제가 차를 세우는데, (주차장을) 노인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긁어요. 그래서 접촉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제 차도 나고 다른 분이 긁어서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16, 여성)”</p>



		- 지역 여건상 주차공간을 확보할 부지가 없어 보임 “여기는 위치상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편의를 말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지역 여건상 봐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19, 여성)”
	그룹2	- 주차장이 없어 차를 눈치 것 길에 세워야 하고, 활동 도중 차 빼달라는 전화가 오면 차를 빼주려 나가야 함 “여기는 주차장 없어요. 눈치 것 세워야 해요. (24, 남성)” “저도 전화 오면 차 빼라고 하면 내려가야 해요. (20, 여성)”
송도	그룹1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나 버스 노선이 한 번에 이어지지 않고 배차간격이 길어 자차를 이용하거나 복지관 방문 횟수를 줄이게 됨 “(복지관에) 올 때 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버스를 갈아타야 되고, 버스를 갈아타는 데도 버스 텀이 30분 간격이에요. 40분도 걸리고. 그래서 자차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 1회만 오는 거고. 불편사항이 많죠. (33, 여성)” -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잦음 “셔틀버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자주 쉬어요. 차량의 점검이라든가. 너무 자주. (33, 여성)” “저는 이용을 안 하는데 메시지로 떠요. 근데 항상 보면 수도 없이 뜨는 거예요. 이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거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을 하죠. (32, 여성)”
		- 지하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함 “제가 일부러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 (중략)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 없어요. 몇 번씩 돌다가 기다렸다가 빠져나가면 해요. (28, 여성)”
	그룹2	- (언급 없음)

3) 노인복지관 이용 빈도

-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복지관 이용 유형은 크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 후 귀가하는 유형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복지관 내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외의 활동은 각종 봉사활동, 일자리 사업 참여, 체육 시설 이용, 식사 등이 있음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 주 1회 이용부터 주 3회 이용 “저는 수업은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들어요. (2, 여성)” “수업은 보통 오전 수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세 번 정도 오고(후략) (5, 남성)” “저는 화목 프로그램. 그런데 지금은 방학이니까 쉬고 있어요. (3, 여성)”



		<p>-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외에 탁구장 이용, 노노케어 사업 참여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함</p> <p>“수업 없을 때는 탁구장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탁구장에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해서 평균 한 두세 번 정도 여기 오고 있습니다. (5, 남성)”</p> <p>“저는 저 노노케어 사업 때문에 그 사무실에 자주 들려요. 복지관 프로그램은 아직 노노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짬이 안 나서 못 하고 있습니다. (4, 남성)”</p>
<p>청학</p>	<p>그룹2</p>	<p>- 주 2회 이용부터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p> <p>“저 같은 경우에는 강제가 있고 없고 간에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해요. (9, 남성)”</p> <p>“저도 일주일에 많으면 세 번 아니면 두 번. (7, 여성)”</p> <p>- 복지관 프로그램 외에 점심 식사, 운동 연습, 친목 활동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함</p> <p>“매일 오는 거는 식사하러 오고 바둑 두러 오고 당구 치러 오고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니 까 강의를 없는 날은 그렇게 오는 거고 강의를 들어오는 거는 일주일에 두 번 왜냐하면 합창하고 기타 수업 2가지. (9, 남성)”</p>
<p>청학</p>	<p>그룹3</p>	<p>- 주 1회 이용, 주 3~4회 이용</p> <p>“저는 월화수목을 와요. (12, 여성)”</p> <p>“저는 세 번에서 네 번인데요 10시 수업이니까 집에서 9시 30분에 나와요. (14, 여성)”</p> <p>“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요. (11, 여성)”</p> <p>“저는 최근에는 거의 못 오는데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 남성)”</p> <p>-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외에 점심 식사, 식당 봉사, 운동, 노인 일자리 참여 등으로 복지관을 이 용함</p> <p>“수업이 있을 때는 한 10시부터 오는데 수업이 없을 때는 한 11시쯤에 와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거나 물리치료를 받거나 그러고 있고 수업이 있을 때는 아 침 10시부터 오는 것 같아요. (12, 여성)”</p> <p>“작년까지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캘리랑 한문 배우러 왔었는데 올해는 노인 일자리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주까지 그 멘토링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운동하러 오거나 점심 먹으러 지나가는 길이 있거나 그러면 혼자 사니까 점 심 먹으러 들리고 그래요. (13, 여성)”</p>
<p>청학</p>	<p>그룹1</p>	<p>- 주 1회 이용부터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p> <p>“저는 일주일에 한번이요. 금요일에 와요. (15, 여성)”</p> <p>“올 때 한 세 번, 네 번. (17, 여성)”</p> <p>“날마다 와요. (18, 여성)”</p> <p>“4일이요. 월화수목 와요. (16, 여성)”</p> <p>“화목 강습 받으러 와요. (19, 여성)”</p> <p>- 복지관 프로그램에 수요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보조 강사로 활동하기도 함</p> <p>“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이렇게 가르치는 보조 강사이기 때문에. (18, 여성)”</p>



	그룹2	<p>주 1회 이용부터 주 2~3회,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p> <p>“3번. (23, 여성)”</p> <p>“화요일 하고 목요일 오전예요. (24, 남성)”</p> <p>“저는 월수. (21, 여성)”</p> <p>“금요일까지 계속 와요. (25, 여성)”</p> <p>“다섯 번 다 와요. (20, 여성)”</p>
송도	그룹1	<p>주 1회 이용부터 주 5회 이용까지 다양함</p> <p>“한 5일 정도. (30, 여성)”</p> <p>“여름 특강이 있어서 5일에서 4일 정도요. 수업이 있으면 그 정도고 평상시에는 3번 정도. (종략) 수업은 (계속) 듣고 있고요. 여기가 추첨제다 보니까 대기자로에 있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31, 여성)”</p> <p>“하루요. (27, 여성)”</p>
	그룹2	<p>주 1회 이용부터 주 4회 이용</p> <p>“일주일에 한번 와요. (34, 여성)”</p> <p>“일주일에 4번 와요. 화요일에 동화 구연 이거를 제가 교육을 받고요. 필라테스 두 번 하고 또 그림 그린 거 캘리그래피랑 또 보테니컬 아트랑 이걸 해서 4번을 와서 거의 송도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33, 여성)”</p> <p>“저는 한 과목을 듣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방학이라서 쉬고요. (32, 여성)”</p>

2. [프로그램 수요]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만족/불만족하는 부분

- 공통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 복지관 직원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만족함. 프로그램의 질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자아실현, 사회활동과 교류, 생활의 활력, 경제적 이익 등에 크게 만족함
- 단 개별 프로그램의 경우 난이도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분되지 않고, 단일한 수준 혹은 초급-중급 수준의 난이도로 구분됨. 이로 인해 매 학기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복지관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큼. 악기, 그림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재료나 도구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이 더욱 도드라짐
-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짧고 방학 기간이 길어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적인 배움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서 불만이 두드러짐.



구분	내용
<p>연수구</p> <p>그룹1</p>	<p>타 복지관에 비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 만족함</p> <p>“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골라 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도가 정말 5점 만점이에요. (3, 여성)”</p> <p>“복지관 나온 지 1년 넘었거든요. 횡수로는 2년. 코로나 때 와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참여해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키오스크도 배우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진짜 저는 이거 5점 만점이에요. 더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1, 여성)”</p> <p>“저는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대도 오전서부터 오후 1시까지 많이 했어요. 컴퓨터 쪽도 했고 전래놀이, 캘리. 거의 다 했어요. 춤추는 거, 노래 그것만 빼놓고는 거의 다 해본 거예요. 여기 탁구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요. 거의 시간대도 골고루 했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다 만족했습니다. (5, 남성)”</p> <p>프로그램이 상반기/하반기에 각 3개월씩으로 짧고 학기 사이 방학이 3개월로 길어 수업의 장기적인 진행이 어려움</p> <p>“저는 프로그램을 학기마다 두 개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상반기에 3개월 하고 후반에 3개월 하고 중간에 방학이 3개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음에 또 지원해가지고 (추첨이) 되어도 가보면 했던 거 그대로. 절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3개월 쉬다 가니까 또다시 그대로 하고. (3, 여성)”</p> <p>같은 프로그램이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매 학기 반복됨</p> <p>“프로그램이 보면 초급반, 중간반이라도 나뉘지면 초급은 새로 들어오고 중급은 저번에 했던 사람 중급에 올라가고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반만 딱 뿔다 보니까, 발전이 없이 가니까 그게 3번, 4번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더라. (중략) 1학기에 했으면 2학기는 중급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초급이나 중급이나 한 반만 뿔으니까 그게 될 수가 없다. (3, 여성)”</p> <p>“스마트폰을 배우러 가더라도 보면 (스마트폰을 다룰 줄) 모르시는 분들도, 아예 (스마트폰을) 키지도 못하시는 분들하고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행돼야 하는데 처음 오시고는 그걸 못 키고 하면 또 감사님이 가서 또 알려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정인 거죠. (1, 여성)”</p>
<p>그룹2</p>	<p>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재미와 보람을 얻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얻어 만족함</p> <p>“재미도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봉사 활동도 하고 하니까. (중략) 삶의 활력도 생기고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6, 여성)”</p> <p>강사진과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고, 복지관과 가천대학교가 협업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특히 만족함</p> <p>“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 치고는 강사님도 괜찮으시고 우리가 배울 때도 굉장히 강의도 좋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또 수업 분위기도 괜찮고요. 또 우리 복지사님들도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또 다른 가천 교육대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그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6, 여성)”</p> <p>복지사들의 친절함과 복지관 직원들이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계해주려 노력하는 것에 만족함</p> <p>“몇 년 다녀봤지만 복지사님들도 다 친절하고 또 이렇게 연계 연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혜택 보게 돈,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라 많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많이 연계해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7, 여성)”</p> <p>“딱 들어오는 순간 다 자상하시고 상냥하시고 오히려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먼저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 분위기가 그래서 복지사님들이라 다 저렇게 하나? 그 받아주는 인상은 참 좋았어요. 제가 느끼지 못한 그런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8, 여성)”</p>



		<p>코로나 이전에 비해 프로그램 수강 기간이 짧아져 불만족함</p> <p>“코로나 이전에는 강좌 수강 기간이 이렇게 짧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년하고 반년 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울 만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6월 말 7월 초까지 해야 되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면 강좌가 끊어져요. (중략) 작년에 전 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예산이 부족이다. 가장 주목적은 그거예요. 부득이 하게 강의를 줄일 수밖에 없다. (9, 남성)”</p>
	<p>그룹3</p>	<p>수업의 난이도 구분이 없어(초급 수업이 반복 혹은 초급 수업이 없음)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강하기 어려움</p> <p>“중국어 초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가서 수업을 들어도 초급을 한 두어 단계를 들으면 그다음에 중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수업을 들을 엄두를 안 내요. 왜냐면 여기 초급만 하니까 이번 회기도 보니까 병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급을 하니까 예전부터 들어왔던 사람이 듣긴 듣는데 예전에 더 잘했던 사람이 들을 만한 수업은 아니거든요. (12, 여성)”</p> <p>“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것은 처음 단계라든가 그것에만 그치다 보면 여기에서 계속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조금 꺼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 남성)”</p> <p>“제가 작년에 캘리 배울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랑 중급반이 없으니까 했던 분이 또 오시면 그 회원한테 죄송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이 많으니까 그냥 하셨던 분도 처음 과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좋지만 발전이 없이 그냥 매일 했던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3, 여성)”</p> <p>“저도 한문을 처음에 입문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제가 또 우쿠렐라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기초는 안 하고 그냥 이어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고 있어요. (14, 여성)”</p> <p>프로그램의 수준이 높고 강사진의 실력에 만족함</p> <p>“저는 한자를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소한 질문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연세가 사실 있으신 선생님이 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11, 여성)”</p>
<p>청학</p>	<p>그룹1</p>	<p>프로그램 강사진의 수준, 복지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p> <p>“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냥 만족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에 점수를 드렸어요. (15, 여성)”</p> <p>“제가 배우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나름은 복지관 강사들이 이 수준이야? 할 정도로 수준들이 높으신 분들을 잘 뽑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점수를 주었던 이유는 사무실에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복지관 봉사는 해봤는데 그렇게 정말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누군가는 자기 뜻대로 아니면 불만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줬고요. 또 가끔 봉사로 제가 여기 앉아 있기도 하는데 직원들이 쉬지 않고 뭔가를 안전을 위해서 보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19, 여성)”</p> <p>“저는 복지관은 여기 처음 왔거든요. 친구가 여기 다녀왔고 소개해서 왔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선생님 강사님들도 좋으시고 또 복지관 선생님들도 썩썩하고 참 좋으시고요. (중략) 저는 말씀하신 대로 댄스라는 거 그걸 하는데 그 선생님은 그걸 하셔가지고 같은 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고 또 영어는 영어대로 또 그 선생님이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7, 여성)”</p>



	<p>“복지관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선생님들을 어떤 선생님을 쓰실까 했는데 선생님들은 진짜 수준 있으시더라고요. 전문가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6, 여성)”</p> <p>-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강사로 활동하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움</p> <p>“저는 작년부터 여기를 나와 가지고 처음에 스마트폰을 배웠어요. 너무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래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해는 또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과의 이런 교류 이런 것도 있고 너무너무 좋고요. (18, 여성)”</p> <p>- 강의 환경이 쾌적함</p> <p>“강의하는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점인 것 같아요. 제가 받는 거 다 좋아요. (17, 여성)”</p> <p>- 한국 무용 강좌의 경우 연습만 하고 공연할 기회가 없어 아쉬움</p> <p>“저는 한국 무용만 했거든요. 계속 연습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팀워크 해보니까 계속 매주 두 번 하는데 계속 그것만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짧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공연하는 보람도 있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15, 여성)”</p> <p>- 프로그램이 난이도에 따라 분반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기초 과정을 수강한 이용자가 다음 학기에 또 다시 기초 과정을 수강하게 됨. 프로그램 경험자와 미경험자가 섞여 진행이 어려움</p> <p>“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이 또다시 기초 과정을 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초 과정에 들어온 사람은 선생님들이 가리킬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19, 여성)”</p>
<p>그룹2</p>	<p>- 강사진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p> <p>“강사진이 좋아요. 그러니까 꼭 공부 위주가 아니고 서로 취미 같은 것도 수시로 물어보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게 너무 좋아요. (20, 여성)”</p> <p>“프로그램들이 다 선생님마다 개성이 다 있으신데 재미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 나이 대는 그냥 파고드는 것보다 약간의 유머랄까 사적인 사회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 조금씩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닌 다른 것도 저희가 많이 얻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배움이 많아서 좋아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선생님마다 다 개성이 틀려서 저희는 많이 도움도 받고 또 선생님들이 최고로 이렇게 성의 것 해 주세요. 진심으로 다 좋으세요. (25, 여성)”</p> <p>“우선 선생님이 현장에서 실제 뛰고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 여기 협회 이사님이시고 또 실제로 mvp 상도 이렇게 받으시고 하신 분이 와서 직접 하시니까 굉장히 실감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르쳐주는 도구들이 채하고 공하고 그다음에 홀 연습 이런 도구들을 다양하게 가져와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그 수업의 친밀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24, 남성)”</p> <p>“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는 것마다 너무 잘 가르치세요. 강사님들이 또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잘 가르치시고 (중략) 유머도 있고 참 이게 어루만져 줘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도 있습니다. (23, 여성)”</p> <p>- 은퇴 후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싶던 활동과 전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함</p> <p>“나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또 전시회도 하는구나. 내 끼를 이제 펼쳐보는구나. 나이 68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3, 여성)”</p> <p>- 단, 원하는 프로그램이 오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오전에 일을 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것이 아쉬움</p> <p>“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오후에 없어요. 저는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주로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어요. (21, 여성)”</p>



<p>송도 그룹1</p>	<p>- 수강중인 프로그램, 강사진에 만족함</p> <p>“올드 팝송, 일본어, 매직테니스, 매직 테니스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배우는 과목이 너무 매력이 있고 선생님들이 진짜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실버라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강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배운 노하우라든가 가르치는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30, 여성)”</p> <p>- 송도노인복지관에는 지도자 과정(프로그램)이 없어 타 복지관을 이용함</p> <p>“송도 복지관은 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아예 프로그램에 없고 연수구는 한자 지도자 과정,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 동화 구연 지도자 과정 이렇게 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 과정 중에 전래놀이가 하고 싶어서 연수구에 가죠. (26, 여성)”</p> <p>-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것에 비해 공간을 사용하려는 수업, 동아리는 많아 아쉬움</p> <p>“제가 매직 테니스라는 운동을 수강을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자체 대강당 딱 하나예요. 그 강당을 쓰고자 하는 팀들은 너무 많고 수업은 너무 많은데 공간은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어서 공간이 약간 좁다는 느낌도 들고 있고 건의하기를 옆에 있는 행정복지관 4층에도 강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없었어요. (31, 여성)”</p> <p>-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만족함</p> <p>“프로그램이 그림책 이야기라든가 동화구연을 듣는데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나이도 있고 하니깐 다른 직업을 갖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걸로 우리 팀장님이 (일자리)사업을 하셔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놀이방이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을 상대로 책을 읽어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딱 한 프로그램만 (수강하러) 오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8, 여성)”</p> <p>“저도 여기서 동화구연을 하거든요. 작년에 동화구연을 하면서 실습을 몇 번 나갔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갔었는데 처음에 나갈 때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죠. 그래서 기쁨보다 떨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가서 부딪혀서 하고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이게 집중하면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음에 몇 번 갔을 때는 더 부담 없이 아이들을 어떡하면 자주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29, 여성)”</p> <p>“이렇게 몇 번 하고 나가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서 세 번째 나갈 때는 머리에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같아요. (25, 여성)”</p> <p>- 방학이 2달가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긴 것이 아쉬움</p> <p>“제가 레이크댄스를 여기서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 두 달 동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함박 종합복지관은 7월 말 정도까지 오픈을 해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분이 그쪽으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방학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해요. (중략)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빨리 종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문제점을 조금 있어요. (30, 여성)”</p> <p>- 프로그램이 난이도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초반 수강 이후 수강할 과정이 없어 불만족스러움</p> <p>“매직 테니스가 기초반만 있어요. 근데 매직 테니스가 왜 좋다고 제가 추천하고 싶냐하면 밖에서 테니스 치는 거는 코트가 커가지고 우리가 나이든 사람이 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중략) 근데 기초반만 있다 보니까 그 배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략) 매직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초반. 그러니까 맨날 배우고 끝나고 배우고 끝나고 중급 들어가야지 이게 기초에서 배우지 않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기초반에 들어가자니 똑같은 걸 배우니까. 고급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이렇게 다른 데서도 또 대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 여성)”</p> <p>“동화 나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만 이것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초급 중급</p>
---------------	---



	<p>고급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갔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고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7, 여성)”</p>
그룹2	<p>대체적으로 매우 만족함</p> <p>“매우 만족 5점이에요. (34, 여성)” “만족하고 있어요. (33, 여성)” “만족이요. (32, 여성)”</p> <p>프로그램 신청자를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마음이 편함</p> <p>“다른 데는 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접수를 하잖아요. 9시에 하면 9시에 땡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대기자로 올려놨다가 빠지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서 며칠 동안 다 접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추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관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하다. 모든 걸 우리한테 맞게 해주시니까 뽑는 것조차도 핸드폰으로 하면 저희는 그냥 대기자로 밖에 못 올리거든요. (32, 여성)”</p>

1-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의향

-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취업 의향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길 원하는 이용자와 취미생활이 되는 소일거리를 원하는 이용자, 일자리 참여를 원치 않는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송도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이 두드러지고, 연수구와 청학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로 나뉘는 양상을 보임. 후자의 경우 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경제활동이 아닌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나 일이 아닌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응답임

구분	내용
연수구 그룹1	<p>데이터 라벨링 등 일자리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함</p> <p>“데이터 라벨링이 되는 거 많이들 자택에서 자기 일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줬으면 얼마든지 그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5, 남성)”</p> <p>애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수구노인복지관 이용을 시작함</p> <p>“먼저 송도복지관에 가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더니 그때는 나이가 안 된대요. 65세여도 밀린다는 거죠. 70대 정도는 가야만 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연수구 복지관에도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일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2, 여성)”</p>



	<p>그룹2</p>	<p>- 하루 2~3시간 돌봄 업무, 경로당 강의 등 이라면 참여할 의향이 있음</p> <p>“아이들한테 유치원이나 그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동화도 얘기하는 그런 것(일자리)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유치원 쪽에서 이렇게 3시간씩 나가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돌봐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게 참 좋죠. (중략) 경로당 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이 있어도 못하니까 그거 가르쳐드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요. (6, 여성)”</p> <p>-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키면 참여할 의향이 있음</p> <p>“실버 밴드를 같이 하면서 한 5년을 봉사를 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요양원 이런 데를 가서 한 40분씩 같이 기타치고 악기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중략) 이거 뭐 기름 값이라도 보조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거 하고 일자리하고 연계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우리 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 남성)”</p>
	<p>그룹3</p>	<p>- 일자리가 필요한 연령대는 60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노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봄</p> <p>“아무래도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은 60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꼭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0, 남성)”</p> <p>-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일자리 프로그램 수요가 높아 보임</p> <p>“예전에 3급 한자를 했었는데 수업을 처음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은 3급 한자 책을 갖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인 엄마들은 그런 지도사 자격을 따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자리 같은 것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의 요구에 따라서 책을 아동 지도 자격 그 책으로 바꿨어요. (중략) 저는 한자 지도사를 배울 때 우리 손녀랑 한문을 하다 보니까 더 애를 쉽고 재미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수업을 선택해서 들어본 건데 엄마들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만약에 이렇게 따는 방법이 있다면 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2, 여성)”</p> <p>- 노인으로서 일자리 보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식의 봉사활동을 하고 싶음</p> <p>“지금은 노인 일자리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일자리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노인으로서 아이들한테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일자리가 연결된다기보다는 그냥 봉사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면 꼭 돈보다는 봉사도 그러니까 할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일자리보다는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14, 여성)”</p> <p>- 체력이 부족하고, 매일 일정 시간을 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움</p> <p>“전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일자리 하는 거 보면 나도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을 들기는 하는데 시간이 없고 체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 하려면 우리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오후 시간이든 오전 시간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체력이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 여성)”</p>
<p>청학</p>	<p>그룹1</p>	<p>- 파크골프 지도자 과정을 이수해 강사로 활동하고 싶음</p> <p>“제가 사실 파크골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했어요. 제가 골프를 하다가 전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되고 주위에서도 시험을 봐서 해라 하는데 여기 마침 생겼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지도자 과정. (16, 여성)”</p>



		<p>- 노인 세대가 다른 노인이나 어린이 등에게 연극, 단막극 등 공연을 하는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한다면 공연료도 받고,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의욕도 고취할 수 있을 것임</p> <p>“꼭 100% 일자리라기보다는 시니어 모델 교실을 개설해서 노년에도 자신을 가꾸면서 할 기도 띄우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넓히다 보면 미디어와 연결해서 공연도 활성화하고 꼭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 어울려서 공연할 수도 있고 (중략) 제가 어린이 연극을 한 2년 하면서 공연 많이 다녔거든요. 보이스피싱이나 어르신을 대변하는 단막극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의 그런 의욕도 생기고 공연료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일석이조가 아닌가. (15, 여성)”</p> <p>- 반려식물 키우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기관 식물 케어 등 일자리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음</p> <p>개인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 (중략) 이거를 해서 자격증 과정까지 했을 때 어르신들이 공공기관 거라도 케어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여기 교실에서 하기 그러면 저쪽 야외에서라도 실습하고 해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19, 여성)</p>
	<p>그룹2</p>	<p>- 현재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여가생활에 집중하고 싶음</p> <p>“도움이 안 되는지 제 생각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먹고살기 힘든데 우리 같은 노인 네가 나가서 일자리를 한다면 젊은이들이 일어설 기회가 부족할 것 같고 우리는 뒤에 앉아서 어른스럽게 여가 활동 하면서 건강 지키면서 그냥 자식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 여성)”</p> <p>“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이 나이에 일자리 나간다는 건 그렇고 그냥 저는 여가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21, 여성)”</p> <p>- 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 적더라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길 바람</p> <p>“60대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중략) 저는 페이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노인 일자리로 적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 여성)”</p> <p>- 한국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함</p> <p>“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경제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방금 생각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도 큰 급여는 주지 않지만 그런 일자리 사업들도 확대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24, 남성)”</p>
<p>송도</p>	<p>그룹1</p>	<p>- 동화구연, 스토리텔링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가 연계되길 바람</p> <p>“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게 스토리텔링 구연동화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돼 가고 강사들을 많이 배출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노인복지관에도 영어 영문과 나왔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또 글로벌 시대이다 보고 또 다문화 가정이 만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잉글리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해도 너무 괜찮지 않을까. 서울에서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 돼 갖고 강사들을 많이 배출시켜요. 그게 돈으로도 경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건의하고 싶었어요. (30, 여성)”</p> <p>“제가 듣고 있는 동화나라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듣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제가 젊었을 때는 어린이집에 종사해 봐서 그런지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애들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요새는 다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가서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은 유대감도 생기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저희가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고.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5, 여성)”</p>



		<p>복지관 이용자들의 오랜 육아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연계 활동을 하길 바람</p> <p>“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육아를 하셨고 40년 이상씩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 봤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니까 동화본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 예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27, 여성)”</p>
	그룹2	<p>애초 취업 정보를 찾다가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함</p> <p>“제가 60이 딱 되면서 제 2의 인생은 60부터라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냥 계속 놀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찾다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일자리 사업) 모집하는 거를 보고선 제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족도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저의 만족도는 정말 매우, 매우 만족이에요. (34, 여성)”</p> <p>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더 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음</p> <p>“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죠.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덜 써요.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더 써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도 낼 수 있고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32, 여성)”</p>

1-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취업 도움 여부

-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복지관 이용자들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과 임금이 적어 복지관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
-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의 종류가 적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한정적임. 그 외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들은 실질 일자리로의 연계율이 떨어짐

구분	내용
연수구	<p>그룹1</p> <p>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자리 사업이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p> <p>“(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급여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일을 해서 뭔가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걸(일자리 사업 참여) 하게 되면 다른 일(민간 일자리)을 못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도움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2, 여성)”</p> <p>취업을 위해 일자리 연계 사업 중 ‘아동 한자 지도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현재 아동 청소년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 사실상 일자리로의 연계가 되지 않는 상황임</p> <p>“제가 일자리하고 연계된 것을 하기 위해서 아동 한자 지도사라는 그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천수 강사를 소개를 받을 때 한자를 애들한테 가르치면 좋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정작 천수 강사를 10년 이상 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자를 다 싫어한대요. 다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별로 지금 와서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자 지도사 자격증도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구연동화 송도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여기 전래동화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까지 다녀요. 근데 그것도 연계가 되려니 하고 다니는 거지. 실제 연계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2, 여성)”</p>



		<p>-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되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음</p> <p>“저는 키오스크 배웠거든요. 배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1, 여성)”</p> <p>-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음. 과거 전래놀이, 구연동화 등 프로그램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았음</p> <p>“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자리하고 연계된 게 굉장히 조금 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키오스크도 최근에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고 그전에 전래놀이든 구연동화 이런 것도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준다고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5, 남성)”</p>
	그룹2	<p>-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당에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되었음</p> <p>“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배울 점도 많아요. 저희도 앞으로 늙으니까 더 그런 경로당 쪽에도 몇 번 수업 가봤지만. (중략) 저희는 스마트폰 수업을 하러 다녔어요. (7, 여성)”</p>
	그룹3	<p>- 복지관의 일자리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이 도움 됨</p> <p>“우리 여기 1층에 노인 일자리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얘기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12, 여성)”</p>
청학	그룹1	- (언급 없음)
	그룹2	<p>-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수강했으나 실제로 일자리와 연계가 어려움</p> <p>“노인 분들이 바리스타 운영하는 카페에 갔더니 연세 드신 분들이 가운 입고 차를 따라줬는데, 커피 그걸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격증을 뒀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중략) (카페 바리스타를) 노인 일자리로 하려고 했더니 저는 웬만한 거는 다 자격증을 따냈거든요. 나이 먹어서 활동을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25, 여성)”</p>
송도	그룹1	- (언급 없음)
	그룹2	<p>- 복지관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만 있는 상황임</p> <p>“그냥 배우고만 있는 거죠. 여기 복지관에서 제가 화요일마다 교육받고 있는 거 외에는 여기 와서 정보를 얻었지. (33, 여성)”</p> <p>“지금 저희가 봉사단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모집해서 나가는 거랑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신 분들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 서비스 형을 해서 매년 사업량으로 올릴 때 저희 어르신들을 염두하고 저희가 올리긴 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복지사)”</p>



2) 프로그램 신청·이용 과정 상 어려운 점

- 프로그램 별 수용 인원에 비해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신청자를 선발하므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렵고 대기자가 많음
- 프로그램이 수준별로 구분되지 않다 보니 인기 과목의 경우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재수강하는 비율이 높음. 이에 따라 같은 난이도의 수업을 반복해 지루함과 불만이 발생함
- 매 학기 프로그램 시간대의 변동이 없거나 적어, 수강하려는 프로그램 시간대가 이용자의 일정과 맞지 않으면 이후 학기에도 수강이 어려움

구분	내용
연수구	<p>그룹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움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자리 사업이 일반 프로그램과 시간이 겹쳐 참여하기 어려움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으니까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3시간 하니까 이렇게 끝나고 가고 그러는데 그거 말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1, 여성)” - 특강 신청자가 많아 특강 수강을 원하는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데, 상습적으로 특강 신청 후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음. 상습 불참에 대한 제재나 대기자 추가모집을 하면 좋겠음 “특강을 듣는데 어떤 때는 그게 다 차버려요. (중략) 근데 가보면 자기가 그거 했는데 그분이 신청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몇 분 계세요. 근데 이 복지관은 또 그걸 또 자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너무 야박한지 모르지만 한 두 번이나 이렇게 불참을 하시면 전화를 해가지고 대기자로 올라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못 듣고 그냥 잊고 그 빈자리는 그대로 빈자리로 그냥 가더라도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1, 여성)”
	<p>그룹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연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강하기 어려움 “1차에 배운 사람들 그리고 또 그 2차에서 또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중략) (프로그램이) 세분화 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조금 그려가지고 나중에 또 신청을 해요. 그래서 초급에서 계속 하다가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분화가 조금 중간에 그게 돼 있으면 조금 더 더 배우는 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캘리그래피도 내가 만약에 1학기 때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해서 또 신청하면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또 배워야 돼. (6, 여성)”
	<p>그룹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수강 정원이 적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어려움 “노인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관심도 많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데 비해서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중략) 건강에 관한 수업이 있으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적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자주 만 들어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노인 분들의 시간도 쓰시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2, 여성)”



		<p>프로그램 시간 상 인당 3가지 프로그램만 수강 가능함.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길 바람</p> <p>“프로그램이 저희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를 정해줘요. 더 이상 못 배우고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당첨이 돼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중략) 만약에 세 개가 아니라 조금 더 프로그램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주말이나 또 야간에도 원하는 프로그램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서 같은 거 엑셀을 배우고 싶는데 엑셀은 없어요. (14, 여성)”</p>
청학	그룹1	<p>복지관 장소가 협소해 수용 인원이 적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대기가 많음</p> <p>“제일 문제가 프로그램에 관한 거는 만족해요.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지금 송도에서도 오시고 동천동에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연수에서 제가 알기로 복지관이 세 군데 있거든요. 연수 복지관, 송도, 여기 근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셔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배우고 싶은데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다 수용을 못하니까 돌려서 뽑는단든지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관이 복지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대기자들은 많은데 그분들을 다 수용을 못해요. (중략) 그래서 하여튼 첫째가 장소.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16, 여성)”</p> <p>프로그램이 오전 시간대에 몰려있어 오전에 다른 일로 복지관 이용이 어려우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음</p> <p>“(컴퓨터 프로그램이) 오전에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시간이 되는데. (18, 여)”</p> <p>프로그램별로 시간대가 고정되어 있어(예: 우쿨렐레는 항상 화요일 9시 반) 한 번 시간이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다음 학기, 다음 년도에도 수강하기 어려움. 고정된 시간대를 교대로 바꿔주길 바람</p> <p>“여기 복지관 이용한 지가 제가 2년 차거든요. 근데 시간대가 거의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중략) 예를 들어서 우쿨렐레는 화요일 9시 반부터 이렇게 드로잉은 금요일 10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댄스는 2시부터 3시까지 월수. 그래서 제가 복지관 선생님들한테도 올해는 이걸 배우고 싶은데 내년에는 이걸 배우고 싶어. 근데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 달라. 댄스 같은 경우에 월수에 2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월,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중간에 딱 끼어 있으니까 근데 저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감당을 하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시간대를 바꿔줘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일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 하는데 그래서 이 고정된 시간대를 이렇게 교대로 돌려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더라고요. (16, 여성)”</p>
	그룹2	<p>(언급 없음)</p>
송도	그룹1	<p>프로그램 신청 경쟁률이 높고 대기자가 많아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움</p> <p>“약기에 대한 거요. 약기는 계속 하잖아요. 초급반 하고 떨어지면 못 하잖아요. (29, 여성)”</p> <p>“(복지관) 프로그램이 68가지가 돼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를 4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10명을 뽑는데 50명이 오면 몰려요. (30, 여성)”</p>
	그룹2	<p>프로그램 신청자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어 대기가 많은데, 대기의 경우 수업을 처음부터 들을 수 없음</p> <p>“강사진도 좋고 다 좋은데요. (프로그램) 선발을 할 때 추천제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신청한 게 다 안 됐다가 생각지도 않게 대기자로 (선발이)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수업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33, 여성)”</p>



		<p>- 프로그램 신청 방법이 추천 방식이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수강이 어려움</p> <p>“(프로그램 수강생) 선정 방식이. 저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계속 해야 좋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전반기 두 번, 후반기 두 번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안 되면 그냥 못 하니까요. 그건 추천제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먼저 나와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2, 여성)”</p> <p>- 프로그램이 수준별로 나뉘지 않아 평준화된 수준으로만 프로그램이 진행됨</p> <p>“(필라테스가) 한 반만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가장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몇 번 빠지면 탈락,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새 사람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이렇게 평준화된 수준으로만 하시더라고요. 2학기 때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하면 좋는데 복지관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안 했던 사람을 더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 만요. (33, 여성)”</p>
--	--	---

3) 특정 성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 연수구, 청학, 송도 노인복지관 모두 70대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고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높음. 남성 이용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남성 이용자들 간 친목을 나눌 수 있는 건강·스포츠 동호회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었고, 프로그램 마련에 선행해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됨
- 이용자의 성별, 연령대를 떠나 고령자들에게는 단순 학습이 아닌 이용자들 간의 친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구분	내용
연수구	<p>그룹1</p> <p>-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약 70%, 80대가 약 30% 정도이고 60대는 매우 적음</p> <p>“제일 많은 게 70대 같아요. 한 60, 70% 이상이 될 겁니다. (5, 남성)”</p> <p>“80대도 20, 30% 정도 돼요. (2, 여성)”</p> <p>“(60대는) 없다고 봐야 돼요. 60대는 일을 하고 계세요. (3, 여성)”</p> <p>- 일반적으로 남성 이용자는 전체 프로그램 이용자의 약 5~30% 정도로 적은 편이나, 컴퓨터 등 일부 프로그램에는 남성 이용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음</p> <p>“우리 가락은 남자분이 20명 정원에 남자분이 2명, 3명 이 정도고 라인 댄스는 남자분이 여기는 고급반인데 20명 중에 남자분이 1명 2명이구요. (3, 여성)”</p> <p>“제가 사군자나 한국화 이런 서예 쪽을 들었는데요. 남자가 한 30~40% 그 다음에 여성 분이요. (중략) 컴퓨터 정비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고치고 새로 프로그래밍하고 그런 걸 했을 때에는 남자 분들은 많아요. 근데 여자 분들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따라서 성비가 많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래 놀이 같은 거 그러면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 분은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 그런 거는 여자 분들이 거의 다 많이 하시구요. (5, 남성)”</p>



	<p>- 고령 이용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p> <p>“그래도 복지관이면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오늘 프로그램 자기가 필요한 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 복지관을 찾든지 계속 찾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만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안 되더라.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래도 나오셔가지고 복지관 가면 친구도 많고 가면 내 얘기 들어 주고 나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3, 여성)”</p>
<p>그룹2</p>	<p>-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가장 많고, 이후 60대, 80대 순임.</p> <p>“70대가 많고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80대도 계시죠. (6, 여성)”</p> <p>- 프로그램의 특성, 랜덤 추첨 결과에 따라 60대와 80대 비율은 달라짐</p> <p>“제가 배우는 프로그램을 따지면 60대보다는 80대가 더 많은 거 같아요. (9, 남성)”</p> <p>“우리는 80대보다 60대가 많아요. (6, 여성)”</p> <p>“배운 프로그램마다 그 연령대가 다르더라고요. (7, 여성)”</p> <p>“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추첨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80대인 분이 많고 또는 60대인 분이 더 많아요. 70대는 제외하고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9, 남성)”</p> <p>- 프로그램에 따라 성비 차이가 크나 대체로 여성 이용자가 많음</p> <p>“합창 같은 경우는 여자가 8이고 남자가 2.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한 7 여자가 3.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성비 차이가 커요. (9, 남성)”</p> <p>“우리는 남자 분 한 분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다 여자예요. 그 위에 반에는 남자분이 그래도 한 세 분 계시나.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6, 여성)”</p> <p>- 60대 남성 이용자를 위해서는 특정한 프로그램보다 복지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p> <p>“저는 60대 초반부터 여기 다녔거든요. 처음에 왜 얘기가 다녀? 왔을 때 그런 시선으로 봐요. 저는 그걸 무시하고 막 배우러 다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60대인 특히 남자 분들은 주눅이 들어서 못 와. 그 이유가 참 많아요. (9, 남성)”</p> <p>“문턱이 높아요. 60대가 오시려면 저희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무슨 노인 복지관을 다녀? 제가 누구한테 권하면 야 거기 가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싫어. 이런 소리를 해요. (7, 여성)”</p>
<p>그룹3</p>	<p>- 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가장 많고, 프로그램에 따라 60대와 80대 비중이 달라짐</p> <p>“(70대가) 한 50% 이상일걸요. 그리고 60대 그다음에 80대. (중략) 60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근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리고 70대가 어쨌든 대부분이에요. (12, 여성)”</p> <p>- 프로그램 별 차이가 있으나 남성 이용자보다 여성 이용자가 많음</p> <p>“오전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한 70%는 됐을 것 같아요. 중국어 한문 이런 거 근데 또 그 아동 지도사 한문은 남자 분들은 많아야 40%. 강좌마다 달라요. (12, 여성)”</p> <p>“전체적으로는 여자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10, 남성)”</p> <p>- 60대 이용자를 위해서는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이 필요함</p> <p>“60대는 아직도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간과 연관돼서 저녁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0, 남성)”</p>



		<p>남성 이용자를 위해서는 학습 프로그램 외에 스포츠 관람 등을 통한 동호회/친목 모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p> <p>“함께할 수 있는, 와서 같이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여기에서 주도하는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서의 어떤 관람을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동호회라든가 친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건 어떤가 생각해봤습니다. (10, 남성)”</p>
	그룹1	<p>복지관 이용자는 70대가 가장 많고, 85세 이상 이용자도 꽤 많은 편임</p> <p>“제가 볼 때는 70대 초반이 최고 많을 것 같은데. 초중반. (중략)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런 지 요가에도 보면 의외로 연세 드신 분(85세 이상 이용자)이 엄청 많으세요. (18, 여성)”</p> <p>스마트폰, 컴퓨터, 강의의 경우 90세가 넘는 이용자도 많은 편임</p> <p>“(85세 이상 이용자도) 의외로 많으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90 넘게까지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18, 여성)”</p> <p>드로잉, 라인댄스, 한국무용 등 강의를 제외하면 스마트폰, 영어, 우쿨렐레, 사교댄스, 파크골프 등은 성비가 반반 정도임</p> <p>“저희 스마트폰 쪽에는 거의 5대 5 정도로 남성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18, 여성)”</p> <p>“영어에는 남자가 많더라고요. 20명 넘는데 한 10명 정도가. 그리고 남자 분들이 또 잘 하세요. (17, 여성)”</p> <p>“우리 우쿨레라도 거의 반 반 정도 되요. 드로잉은 여자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댄스도 거의 반반인 것 같고요. 사교 댄스라 그런지. (16, 여성)”</p> <p>“(파크골프는) 전체적으로 15명 중에서는 성비가 5대 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9, 여성)”</p>
청학	그룹2	<p>복지관 이용자 중 70대가 가장 많고, 이후 80대, 60대 순임</p> <p>“7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4, 남성)”</p> <p>“80대도 그래도 있죠. (21, 여성)”</p> <p>“(80대가) 60대 보다는 많죠. (24, 남성)”</p> <p>대체적으로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성별의 편차가 있음. 골프, 언어, 드로잉 등은 여성 이용자가 많고 사교댄스는 남성 이용자가 많음</p> <p>“(골프의 경우) 전체가 15명인데요. 남자가 한 5명 정도 되고 나머지 10명은 여자예요. (24, 남성)”</p> <p>“언어 같은 경우는 여자가 7이면 남자가 3. (20, 여성)”</p> <p>“사교댄스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한 12명, 13명이면 여자는 한 7, 8명. (21, 여성)”</p> <p>남성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60대 후반 남성도 복지관은 70대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복지관 이용을 꺼리기 때문. 또한 60대 남성은 아직 생계활동을 하는 나이이므로 이용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임</p> <p>“우선 제 친구들을 보면 60대 저도 후반인데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복지관 같이 가자고 하면 꺼리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관여치 않기 때문에 저는 다니는데 그 복지관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중략)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는 한 70대 넘어가면 그때는 다니고 싶지. 지금은 아직 자기 할일이 많아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남자 60대 분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p>



		<p>실제적인 가장이 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0대이신 분들은 그래서 70대까지는 아마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60대 남자들이 적은 것 같아요. (24, 남성)</p> <p>- 남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웰빙 댄스, 건강 체조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p> <p>“나이 먹을수록 치매라든가 이런 거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몸 건강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웰빙 댄스 그다음에 라인 댄스 그다음에 건강 체조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24, 남성)”</p> <p>- 단순 강의식 프로그램이 아닌 이용자들끼리 동호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때 마다 강사를 지원해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60대 초반 남성 이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임</p> <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이렇게 해갖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동호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동호회를 이끌어주면, 거기에 필요하면 선생님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하루 365일 이렇게 계속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면 젊은 사람들도 60대 초반인 그런 노인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략)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 두 개씩 이렇게 운영해서 이끌어가면서 관심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4, 남성)”</p>
	<p>그룹1</p>	<p>- 복지관 이용자 성비는 프로그램 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8대 남성 2 정도임</p> <p>“수업마다 다르긴 한데 전체 평균 했을 때 그래도 한 8 대 2. (복지사)”</p> <p>- 상담 사업 결과 우울감이 높은 이용자가 송도 지역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상담 사업이 확대되길 바람</p> <p>“복지관에서 심리 상담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또 복지관 특성이 노년 사회화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 비율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복지관들의 상담 사업에 대한 예산 기준이 확대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동탄이나 탁류랑 저희가 복지관 회원 유형이 비슷하긴 하지만 걸으로는 밤으 시더라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 되게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저희 송도 지역에 많다는 거를 최근 들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기회를 주시면. (복지사)”</p> <p>“심리 상담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노인들끼리 서로 같은 나이 노노 해가지고 그런 상담을 하는 게 지금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 여성)”</p>
<p>송도</p>	<p>그룹2</p>	<p>- 복지관 이용자 성비는 여성 비율이 높음. 여성 비율이 높아 남성 이용자들이 쉽게 복지관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음</p> <p>“여자가 더 많죠. 제가 다른 수업 보니까 한 3 대 2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3, 여성)”</p> <p>“저희 동화구연 했을 적에 남자 어르신이 오셨었어요. 그랬다가 오시더니 못하겠다고 여자 분들만 다 계시고 이러니까. 프로그램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34, 여성)”</p> <p>“마치 여성복지관이 돼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32, 여성)”</p> <p>“남자 분들이 좋아하는 건 당구, 바둑, 서예 이런 거고요. 여자들하고 성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33, 여성)”</p> <p>“남자들이 여자들은 많은 데 가지고 뭔가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자들만 있는 프로그램에는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는 소속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34, 여성)”</p> <p>- 복지관 이용자는 60대 후반에서 70대가 가장 많음</p> <p>“(가장 많은 이용자 연령대는) 60대 후반에서 70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만 62세 이상이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도 있죠. 근데 주로 주 이용층</p>



		<p>은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 물론 80대도 있기는 있어요. (33, 여성) “저희는 평균 나이까지는 아니고 비율로 했을 때 60대가 44.8% 그리고 70대가 40.5%. (복지사)”</p> <p>60대를 대상으로 악기 공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공연을 통해 복지관 인지도를 높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p> <p>“거리 플랜카드를 보니까 해변 축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여기 복지관에서도 색소폰 같은 거 부시는 분들을 모셔서 3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해변 축제를 했을 때 우리 노인들도 악기를 하나를 하든지 우리 노인들도 가서 잠깐이라도 그런 공연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서 (복지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또 참여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34, 여성)”</p>
--	--	--

3.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개선점과 건의사항

- 3개 노인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노인복지관의 ‘노인’ 명칭이 비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복지관 이용을 저해한다고 언급함.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 중인 참여자들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전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이용을 망설였던 경험이 다수 언급됨. ‘노인’ 복지관 명칭 변경 혹은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 노인복지관이 적극적인 이용자 뿐 아니라 신체·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 지역의 소외 독거노인까지 포용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됨
- 노인복지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신설하는 것도 만족스럽지만, 고령의 이용자들은 이용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는 동호회와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구분	내용
연수구	<p>이용자 연령층에 맞추어 강사진도 연령대가 높으면 좋을 것임</p> <p>“제가 듣는 수업인 한자 지도사는 강사분도 연령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굳이 젊은 강사만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 참여자가) 70대, 80대가 많잖아요. 그니까는 강사분도 연령대가 있는 분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여성)”</p> <p>‘노인’ 복지관 이미지를 바꾸어야 함. 초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용을 꺼려함</p> <p>“노인복지관이라는 이미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노인복지관 하니까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건물목에서 깃발 들고 있거나 풀 뽑거나 하면 진짜 노인네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내가 낸 세금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 여성)”</p>



	<p>“오기를 꺼려해요. 진짜 아주 힘없고 노인들만 가는 데인지 알고 내가 아직 거기 갈 나 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70대 초반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내가 복지관 간다고 그러면 재는 이상한 애야. 그래요. (5, 남성)”</p> <p>“가자고 하면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너 그거 왜 갔어? 노인네들 뒷바라지 하러 가냐? 이려고 있어요. 한 번만 와 봐. 와보면 달라질 거라고 그래요. (1, 여성)”</p> <p>- 복지관은 노년층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배우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함</p> <p>“노인 복지관에서 반드시 시간 때우러 가는 데는 아니다. 복지관을 뭔가 앞으로 나도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러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2, 여성)”</p>
<p>그룹2</p>	<p>-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대강당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 고령의 어르신들은 장애가 없어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수업을 들어도 휠체어 이용자는 마지막 발표에 참여할 수 없음</p> <p>“휠체어를 탄분들이 합창을 하고 싶어도 배울 때까지는 괜찮은데 매년 우리가 가을에 되면 발표회를 해요. 각 프로그램마다 근데 거기(무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략) 어떻게 보면 이런 장애 복지에 대한 인식이라 그럴까 이게 아주 참 많이 미비하구나. (9, 남성)”</p> <p>- 특수 악기 등 수요가 적은 분야도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주길 바람</p> <p>“특수 악기라든가 그런 강좌도 한 번씩은 욕구 조사를 받아 해갖고 한 번씩 처음에는 힘들면 특별 강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알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느 정도 호기심을 갖고 그러면 감사 분을 초빙하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9, 남성)”</p> <p>- 수급자들은 여러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 수급자가 아닌 보통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혜택을 모름.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함</p> <p>“어르신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나오고 무슨 구루마가 나오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수급자에 한해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진짜 나오는 게 많아요. 혜택 보는 것도 많고 나라에서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작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멀쩡하니까 혜택 받을 게 뭐 있냐? 이러는데 물론 돈 많아서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기 복지관에서 그런 거를 활성화해서, 가전대를 통하든. (중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 있으면 여기로 얘기해가지고 또 복지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또 얘기해서 우리가 또 거기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7, 여성)”</p> <p>“(복지관에 대해)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중략)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여기 꼭 다니시는 분만 아니라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6, 여성)”</p> <p>- 복지관은 고령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함</p> <p>“문턱이 높아요. 60대가 오시려면 저희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무슨 노인 복지관을 다녀? 제가 누구한테 권하면 야 거기 가면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싫어. 이런 소리를 해요. (7, 여성)”</p>
<p>그룹3</p>	<p>- 어르신들의 체력에 맞는 단계별 운동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람</p> <p>“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요즘에 그런 거 있고 본인들도 또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업 시간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게 체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체력이 되는 레벨 순으로 있어야 되고 요가 같은 것도 수업의 종류가 더 있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운동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운동 프로그램을 레벨별로 근력 운동이면 스트레칭 운동이며 요가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용자들을 다 흡수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 여성)”</p>



		<p>-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서로 친목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동호회를 운영하길 바람</p> <p>“사실 내가 지나가다 이 어머님한테 엄마 혼자 살아요? 그럼 나하고 친구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모두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13, 여성)”</p> <p>- 신체가 불편하거나 환경이 어려운 복지관 이용자는 복지관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함</p> <p>“봉사자들이 엄청 많은데 식당 일자리라곤 해갖고 거기서만 일하셔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데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 어디 계셔서 뭘 하는지 알면 봉사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뭘 해드렸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우리 일 바쁘다 보니까, 배식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분까지 신경 못 썼는데 그분은 어떻게 집에 돌아가시나 이런 것도 걱정이고. (12, 여성)”</p>
청학	그룹1	<p>- ‘노인’ 복지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60대의 경우 이용이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음</p> <p>“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끄러워서 못 왔었거든요. 어르신들 모이는 곳에는 부끄러워서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60대 분들이 못 오실 것 같아요. 시간은 많아도 이리데 선뜻 노인이 앞에 붙었잖아요.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그게 그 이름 때문이라도 잘 못 오시지 않나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노인 일자리도 정말 가는데 너무너무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분들 모아놓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부끄러워 가지고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로 사진 찍으면 얼굴 어떻게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18, 여성)”</p> <p>“여기(노인복지관)는 연세 드신 분이 오는 거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을 것이다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7, 여성)”</p> <p>- 같은 노인 세대라도 60대와 70대, 80대는 세대 차이가 있고 부모님 뻘인 경우도 있어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움</p> <p>“제가 60대거든요. 60대 후반인데 제가 와보니까 저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왔어요. 와서 배웠는데 좋은 대신에 제가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 세대와 제가 아무래도 생각이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섬겨야 되고 이렇게 물론 어머니, 아버님, 어르신 하지만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내 부모님 세대와 같이 뭘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부모님 같으니까 편하고 이런 점도 있는데 동년배와의 친숙함 이런 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16, 여성)”</p> <p>- 글쓰기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함</p> <p>“가끔씩 tv에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시를 적어놓고 글 배우면서 그냥 글씨 하나하나 배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안에 있는 뭔가를 조금만 탁 터뜨려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글쓰기 하는 거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건의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자녀들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게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내지면서 한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8, 여성)”</p> <p>- 어르신들에게는 프로그램 자체보다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큰 힐링일 수 있는데, 복지관에 앉아서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음</p> <p>“저는 책을 읽으면서 씬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있잖아요. 복지관에 그게 없어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대화 상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한 번 시작하면 끝없이 나와요. 정말 힘들 정도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책도 읽으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원하거든요. (중략) 씬터 이런 공간 진짜 필요하거든요. 노인한테는요. 이렇게 풀도 보고 꽃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사소한 수단을 떨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뭘 배우는 것보다 더 힐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16, 여성)”</p>



	<p>그룹2</p>	<p>- 노인복지관은 70대 중반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인식, 노인복지관이 곧 경로당과 비슷한 곳이라는 등 복지관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p> <p>“복지관을 경로당으로 생각해요. (중략) 칙칙한 느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20, 여성)”</p> <p>“수준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죠. (23, 여성)”</p> <p>- 노인복지관의 ‘노인’ 명칭이 60대 이용자의 이용을 저해함</p> <p>“복지관 다니다니까 우리 친구 동창 애들이 야 우리 나이가 복지관 같 나이는 아니잖아. 돈 주고 전문으로 배워. 그 노인네들 많은데 거기 가서 뭐 노인네 좀 있으면 70 중반 돼서 가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노인 복지관을 그렇게 빨리 다니냐 이거야. 그래 너네들은 어디 다니는데? 자기네들은 동사무소나 돈 주고 배우는데 간대. 그러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23, 여성)”</p> <p>-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람</p> <p>“더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가 좁잖아요. 저희가 다니는데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25, 여성)”</p> <p>- 오후 시간대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길 바람</p> <p>“오후 시간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21, 여성)”</p> <p>-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이후 담소를 나눌 공간이 없음</p> <p>“식당도 그렇지만 우리가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략) 커피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24, 남성)”</p> <p>“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매번 나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거든요. 여기 내에 그런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1, 여성)”</p> <p>- 빔프로젝터 등 복지관에 비품, 설비 지원을 잘 해주길 바람</p> <p>“(빔프로젝터)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애먹었어요. 이게 발런스가 안 맞아갖고 애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지원을 못해주는지 모르겠어요. (20, 여성)”</p>
<p>송도</p>	<p>그룹1</p>	<p>- 노인복지관 ‘노인’ 명칭 개선 필요. 복지관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p> <p>“노인들만 가는 데라고 생각 하시는데 본인이 정작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25, 여성)”</p> <p>“노인 복지관 그니까 이름도 어떻게 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이라는 게 들어가면 실제 여기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26, 여성)”</p> <p>“그래서 이런 (노인 명칭 관련)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어떤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기관 명칭 제안 공모전을 해서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는 조금 늘어난 거 같아요. (복지사)”</p>
	<p>그룹2</p>	<p>- 이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바람</p> <p>“저희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어요. (중략) 저는 요가를 저도 많이 늦게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가 같은 거를 해보면 확실히 하는 거 안 하는 거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들에 한 번씩,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쉽다). 제가 차를 갖다가 한 1시간, 2시간 정도 타고 내리면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확실히 굳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러면서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운동은 거의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2, 여성)”</p>



		<p>“필라테스랑 사회 체육 같은 거 이렇게 평범한 노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렇게 잘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면 좋겠고요. 개방화된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유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34, 여성)”</p> <p>- ‘노인’ 명칭, ‘어르신’ 명칭이 어색하고 좋지 않음</p> <p>“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복지관 갔다 왔다 그러지 노인 복지관이라고 안 해요. (중략) 저는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르신’ 하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하는 것 같지 않고 ‘나한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32, 여성)”</p> <p>“저도 이게 구연이 없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성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을 했지. 이쪽에 안 왔을 것 같아요. (34, 여성)”</p>
--	--	---

4. 기타 의견

-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가격 대비 만족한다는 의견과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함께 언급됨. 복지관 식사에 불만족하는 이용자들은 식단의 다양성과 음식의 질에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관의 시설 부족과 공간의 협소함으로 프로그램 참여와 복지관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됨

구분	내용
연수구	<p>그룹1</p> <p>-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저렴하고 맛이 좋아 매우 만족함</p> <p>“여기 식당에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금액도 저렴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속도가 늦는데 정말 남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2, 여성)”</p> <p>-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서류 조건만 활용하다 보니 보기 안쓰러운 경우가 많음(예: 허리도 펴지 못하는 노인에게 학교 앞 통학지도 일자리를 배정하는 등의 상황). 서류 조건 외에 신체적인 조건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주어야 함</p> <p>“진행 중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학교 앞에서 애들 통학지도 하는 교통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연세가 높아요. 폭설이나 겨울에 내가 손자들을 데려다 주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살려고 그러는 건지 잡으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한 번 했었는데 먹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를 70대로 맞춰주든지 80대 분들은 안 된다고. 날씨 상 제가 봐도 아니에요. (4, 남성)”</p> <p>“체격도 그렇고 막 허리가 이렇게 되어서. (1, 여성)”</p> <p>“보고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2, 여성)”</p> <p>“불쌍해 보이는 일자리를 주지 말자는 얘기지. 왜 불쌍해 보이는 거를 주냐 이거죠.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봐요. (5, 남성)”</p> <p>“(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나이에 관계없이 신체적인 거를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4, 남성)”</p>



		<p>“(신체 조건이 좋지 않은 어르신도) 신청하면, 서류 조건에 해당만 되면 신체 조건을 안 보니까. 다 뽑아놓으니까 우리가 치매 활동 어르신들 찾아가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본인 보다 더 못한 분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뽑을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매번 느껴요. (3, 여성)”</p> <p>“일자리를 맞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여성)”</p> <p>- 일자리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해야 함</p> <p>“노인 일자리가 근데 조금 일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재료비도 안 된다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중략) (물품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크도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률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 여성)”</p>
<p>그룹2</p>		<p>- 구청의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해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의 질을 제고하길 바람</p> <p>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료급식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음식의 질이 (높았으면 함).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에서 더 신경 쓰고 예산을 배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 남성)</p> <p>- 동구의 경우 구청이 지역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p> <p>“거기(동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나면 그 지역에 회사 있잖아요. 회사나 기업체에다가 후원금을 받아요. 노인들에게 목욕비로 1년에 12만 원을 줘요. 6월까지 6만 원 6월에서 12월까지 6만 원해서 12만 원. 그런 걸 다 어디서 받느냐면 인천제철 거기 크잖아요. 인천제철 또 동북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대한제분 그런데 해서 의원님들끼리 그렇게 해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시스템)라서 노인네들이 동구에서 살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끔. 제가 요번에도 가서 너무 동구가 참 그럴다는 얘기를 했어요. (8, 여성)”</p>
<p>그룹3</p>		<p>- 노인들이 운동하기에 복지관 헬스장 내 기구들은 사용이 애매하고 어르신들의 운동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함. 그래서 가천대 헬스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p> <p>“우리 헬스장 가지고는 여기 있는 헬스장 갖고 운동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워킹이나 이런 거나 자전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운동 기구들은 이게 운동이 될까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길 건너 가천대 헬스장에 노인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여기서 운동 못하니까 거기 가서 하신다고 할 거예요. (중략) (어르신들이) 운동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2, 여성)”</p>
<p>청학</p>	<p>그룹1</p>	<p>- 청학노인복지관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노인 인구가 많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이용자가 많음. 이런 이용자의 경우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복지관이 저녁시간대와 주말에도 운영한다면 좋겠음</p> <p>“그냥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는 주말(운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청학동이 보시다시피 신도시하고 여기 구도시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사실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제가 사실 청학동 통장을 해요. 제가 상황을 잘 알죠. 연수구에서 청학동이 노인 인구가 제일 많아요. 특히 이쪽이 그분들이 저녁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사는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 사시든지 부부가 사시든지. 그럼 저녁 시간에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중략) 직원들 이런 거 빼고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용자분들만 생각하면 주말에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 (16, 여성)”</p>



		<p>- 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노인 위주의 복지관이 아닌 청소년,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길 바람</p> <p>“혹시 복지관을 증축 개축이 아니라 신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만일에 있다면 제 생각에는 노인 중심의 노인 위주의 노인복지관 공간도 괜찮지만 가정에서도 삼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문화센터처럼 밑에서 쓰고 3층에서는 청소년 수련으로 써서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그런 개념에 센터가 지어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빈 학교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한쪽에서는 정말 유치원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저쪽에서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청장년 세대들의 소리도 들리고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춤도 추고 궁따라도 하고 뭔가 바리스타 배워서 취업도 해야겠다, 라든가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이상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9, 여성)”</p> <p>-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듯함</p> <p>“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건강하시니까 그분들 말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중략) 제가 겪어보니까 그럴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찾아주실 때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가까이 가면 어떨까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는 어떨까 싶어요. (15, 여성)”</p> <p>- 복지관 이용자 인원이 많으니, 많은 인원을 활용해 타인에게 봉사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람</p> <p>“(복지관에) 정말 인원이 많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다르게 남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자그마한 거지만은 정말 편찮으신 분들한테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18, 여성)”</p>
	<p>그룹2</p>	<p>-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복지관에 카페를 열면 좋을 듯함</p> <p>“(노인일자리) 꿈꾸는 카페가 전국적으로 인천 연수구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24, 남성)”</p> <p>- 파크골프 수업을 들어도 인천시 내에 파크골프장이 적어 실제 골프장에서 실습이 어려움</p> <p>“파크골프를 지금 두 달째 배우고 있는데 인천이 인구가 대구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도시인데 대구는 파크골프장이 한 70, 80개 된대요. 구마다 5, 6개씩 있는데 인천은 인천 전체 털털 털어서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골프를 한번 배웠으면 현장에 가서 쳐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을 찾아보니까 여기 선악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를 2시간 전에 가서 티켓팅을 하고 2시간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서 해야 하고 늦게 가면 티켓팅도 못 한대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실제로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프장이 없어갖고. (24, 남성)”</p> <p>- 식당이 협소함</p> <p>“식당이 너무 협소해요. (20, 여성)”</p>
<p>송도</p>	<p>그룹1</p>	<p>- 식단이 고기, 생선 위주라 채식을 하는 사람은 식사가 어려움</p> <p>“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육식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식당을 이용했을 때 어느 날은 고기 어느 날은 생선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이렇게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으러 갔어. 근데 고기가 나오는 날 대체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 이외에는 김치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 그렇게 두 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밥을 먹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27, 여성)”</p>



그룹2	<p>식단의 반찬 수, 질적 측면 모두 부족하다고 느낌</p> <p>“저는 자주 이용은 안 하지만 어쩌다가 해 봤을 경우에 식단이 잘 짜여져 있는데 만족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식단을 좀 더 어차피 어르신 분들이 오셔서 한 끼 드시는 건데 그래도 더 (잘)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회자 : 반찬 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질적인 측면인지?) 2가지 다요. (34, 여성)”</p>
-----	---